

꿈 수업? 꿈 인아웃!!!



2020. 8. 20.

김 승 배

차례

1. 머리말	1
2. 1학기 실시간 줌 수업 개요	1
3. 줌 수업 진행 세부 방법	2
가. 수업 전	2
나. 수업 시작	4
다. 수업 후	10
4. 수업 평가	11
5. 제언	12

줌 수업? 줌 인아웃!!!

김 승 배

1. 머리말

왜 이 글을 쓰는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지?’ ‘실시간 수업을 하고 싶는데 편찮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에게 필자의 사례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글은 이렇게 구성되었다. ‘나는 이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이렇다더라.’ ‘2학기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읽는 분들이 2학기 수업 준비에 한 가지라도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라며 시작해본다. 다만, 미리 몇 가지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은 어디까지나 여러 화상 수업 중 줌을 이용한 수업에 한정해서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엄격한 연구 과정을 거친 논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당장 화상 수업을 하려고 할 때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다. 쉽게 말해서 줌으로 화상 수업을 하고 싶은 교사에게 드리는 일종의 Tip 같은 글이다. 이 점을 참고해서 읽어주기 바란다.

2. 1학기 실시간 줌 수업 개요

필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한국사 수업 2개 학급을 주당 3시간, 2학년 세계사 수업 3개 학급을 주당 3시간 맡고 있다. 두 수업 모두 수업의 목표를 ‘자기다운 민주시민’으로 잡고, 역사적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소재로 삼아 탐구, 토론, 논술하는 수업을 기획했다. 수업을 통해 역사적 주제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동원하여 논리적인 말과 글로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1학년의 경우 대주제로 ‘조선이 어떻게 하면 일제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를 제시하고 수업마다 소주제를 잡아 진행했다. 세계사의 경우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고대문명은 인류 역사의 발전인가?’, ‘지구 제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제시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1학년 한국사의 경우 수업에 맞게 논술을 2차례 진행했으나 수업 중 수시로 진행한 토론을 평가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세계사의 경우 지필 평가를 100퍼센트 서·논술로 진행했고, 토론과 논술을 수행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했다.

4월 16일 온라인 개학 이후 2차 지필 평가 이전까지 1학년의 0반의 경우 29차시 수업 중 22시간을, 1학년 @반의 경우 21시간을 줌 수업으로 진행했다. 나머지 시간은 영상을 촬영하여 과제형으로 수업을 대신했다. 2학년 세계사의 경우 2차 지필 평가 이전까지 3개 학급 모두 전 차시 수업을 줌 수업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수업에 한해서 한 차시의 평균적인 근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학년 0반의 경우 4명, 1학년 @반의 경우 4-5명, 세계사□반의 경우 7-8명, 세계사△반의 경우 3-4명, 세계사○반의 경우 초중반에는 4-5명, 후반에는 8명 정도 결석했다. 수업 진행 방식은 학년별로 달랐다. 1학년은 대체로 안내 - 도입 - 모둠 활동 - 전체 공유 순으로 진행했다. 2학년은 2시간 블록 수업이 있어, 1학년의 순서를 두 번 반복하거나, 짝 활동과 개별 활동 등을 수업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배치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2학년 세계사의 경우 교사가 교과서 내용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블록 수업에서 일부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짝 활동 결과를 일일이 전체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수업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1>에서 <표5>는 5개 전체 학급의 보다 자세한 수업 내용, 방식, 근태 사항을 담았다. <표6>은 1학년 온라인 수업에서 차시별로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지를 순서대로 모은 것이다.

3. 줌 수업 진행 세부 방법

한 차시의 줌 수업을 진행한 세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필자가 1학기 동안 나 자신과 교과에 맞게 적용한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화상 수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도 없고, 교과와 교사에 맞게 다르게 활용할 일이다. 다만, 한 학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 배운 방법이라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삼을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기에 공유한다.

가. 수업 전

- 1) 줌을 다운받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과정까지는 학교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준비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줌 홈페이지(zoom.us)에서 교육청에서 부여받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개인-설정'으로 들어가 기본적인 줌 설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의실 개설, 화이트보드와 주석 기능 사용, 화면 공유,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수업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는 경우 설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 2) 수업 전 세 번 정도 실시간 줌 수업을 공지한다. 먼저, 수업 하루 전 늦은 저녁 시간에 클래스룸 스트림에 실시간 수업을 공지한다. 이유는 대다수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당일 9시 전에 수업 관련 활동지 등 자료를 업로드하면서 한 번 더 수업을 공지한다. 대다수 학생들이 출석 체크를 위해서 9시 전후에 적어도 한 번은 눈을 뜨고 클래스룸에 접속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작 20분 전에 줌으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스트림에 공지한다. 학생들은 출석체크 후 줌 수업 시작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있기 때문이다.
- 3) 수업 시작 20분 전부터 셋팅을 시작하여 늦어도 10분 전에는 줌에 학생들을 초대해야 한다. 초기에는 셋팅하는 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동 시간, 책상 배치 시간, 노트북 연결 시간, 줌을 열어 여러 가지를 설정하고, 초대하는 데 10분 정도는 걸린다. 완전히 적응했을 때에도 학생들이 정시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0분 전에 초대를 해야 한다.
- 4) 장소는 수업 교실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보다 좁고 밀폐된 장소를 사용하면 교사의 집중도 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다. 교실의 장점은 교실 티비를 노트북 화면과 함께 동시에 활용(F4)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리가 울리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점, 예고 없이 학교 전체 방송이 울리거나, 주무관님 등 학교 관계자가 주변에서 공사하는 소리를 크게 내거나, 여러 다양한 분들이 교실 문을 불시에 열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
- 5) 교실이라면 3개의 책상이 필요하다. 책상 1개는 노트북을 둔다. 다른 책상에는 출석부를 둔다. 마지막 책상에는 수업에 필요한 활동지, 교과서 등을 둔다. 필자는 디귤자로 배치했다. 앞쪽에 노트북 책상, 왼쪽에 교과서 등 책상, 오른쪽에 출석부 책상을 두었다.
- 6) 셋팅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줌은 전원을 매우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반드시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2시간 블럭수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개인 핸드폰을 연결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있는 곳에서 수업해야 한다. 무제한이 아니라면 한 달 치 데이터를 한 시간에 다 쓸 수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드로이드캠을 다운받아 핸드폰을 보조캠으로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필기를 했다가 데이터 사용량을 보고 매우 당황한 적이 있다.

- 7) 줌에 접속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 계정으로 접속해야 한다. 개인 계정으로 접속할 경우 40분 후에는 자동으로 끊긴다. 필자의 경우 4월에 학급 회의 하다가 도중에 끊기는 바람에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
- 8) 줌에 접속해서 가장 먼저 왼쪽 상단의 기록을 '일시 중지'한다. 불필요한 부분을 녹화하지 않기 위해서다. '보안' 메뉴에서 대기실 사용을 설정한 상태라면 대기실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한다. 대기실 사용이 더 불편하다. 학생들이 바로 입장하도록 하는 편이 출석률을 높인다.
- 9) 노트북 스피커를 '온'한 상태에서 볼륨을 높인다. 이 설정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해프닝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업 시작하면서 교사 노트북 스피커를 잠가둔 상태로 한참 동안 말하다가 학생들이 채팅으로 '저만 안 들리는 건가요?'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래서 미리 스피커를 틀어준다. 대신 비디오는 '중지', 오디오는 '음소거' 해둔다.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음소거'를 해두지 않고 혼잣말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드시 음소거를 설정해두고 나머지 셋팅을 시작한다. 동시에 학생들 전체를 음소거해야 한다. '참가자'를 누르면 명단이 나오고, 맨 아래 부분에 '모두 음소거'가 있다. 눌러서 참가자 스스로 음소거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체크를 없애고 '예'를 누른다. 이 상태가 되면 학생들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내 소리도 학생들이 들을 수 없으니 대기실과 같은 상태다. 단, 이 상태에서도 학생들에게 채팅으로 인사, 수업준비물 준비, 수업 시작 안내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만 음소거를 해제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할 수도 있다. 필자가 주로 많이 한 방법은 인사, 수업 활동지다운 안내, 결석한 학생 등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이나 안내를 했다. 이 상태에서도 교사 노트북 스피커는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장할 때마다 소리로 알려준다.
- 10) 수업 시작 전 10분에 학생들이 입장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회의실을 랜덤이 아닌 고정모둠으로 할 경우 특히 그렇다. 수업 중에 소회의실을 할당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에 대기하면서 들어오는 학생들 중심으로 미리 해두면 매우 편리하다. 물론 랜덤으로 할 경우에는 굳이 미리 할당할 필요는 없다. 소회의실을 누르고 고정 모둠 숫자보다 1-2개 많게 만든다. 왜냐하면 늦게 들어오는 학생이나 모둠에 넣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임시로 필요하다. 소회의실을 만들어 오른쪽 할당에 마우스를 대면 참가한 학생들 명단이 뜬다. 할당하면 된다. 잘못 할당된 경우에도 이동, 교환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11) 매 차시 수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날짜, 요일, 차시, 수업 주제, 수업 진행 순서 등을 중심으로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시로 수업 진행 과정의 중요한 일들을 메모해둔다. 수업이 다 끝나면 결석, 지각 등의 근태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진행된 수업 과정, 수업 중 특별한 내용을 기록해둔다. 출결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출결과 관련해서는 수업 직후 기록해두지 않으면 이후 사실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반드시 기록해 둔다.
- 12) 수업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채팅이나 또는 교사만 음소거를 해제해서 이름을 학번이름순('10101성춘향')로 바꾸도록 안내한다. 학생들 이름을 다 알고 익숙한 경우에는 상관없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 화상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 확인을 위해서 학번이름순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면 출석확인과 수업 진행에 매우 편리하다. 특히, 2-3학년처럼 여러 개 반이 모인 경우에는 학번이름순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13) 필자는 비디오를 켜 상태로 학생들은 비디오를 끈 상태로 수업을 진행했다. 각자 선택할 부분이다. 필자가 비디오를 끈 상태로 수업을 한 이유는 학생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 4월에 학급회의를 화상

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했다. 금방 잠에서 깬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도 하고, 설사 예쁘게 꾸몄다 하더라도 화면에 어떻게 비칠까 신경 쓰는 모습이 많았고, 자신의 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 녹화되거나 사진으로 찍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교사 입장에서도 30명 가까운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다. 초반에는 근태에 관한 걱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대리출석 문제다. 실제로 2학년 여학생의 목소리가 초등학생의 목소리여서 매우 의심스러웠고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 자신의 목소리였다. 단 한 번도 대리출석으로 속인 사례는 없었다. 다만, 비디오를 켜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소리로도 어느 정도는 확인 가능하기에 비디오를 켜 상태로 하는 것과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14) 교사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초기에는 큰 걱정 없이 필자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수업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후에는 비디오를 켜 상태에서 노트북 화면을 뒤로 젖혀서 얼굴이 나오지 않거나 머리카락만 나오게 하거나 손을 들어 인사를 하는 정도로 대신했다. 교실 수업에서 이미 익히 얼굴을 알고 있기에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가상 배경을 설정해두면 수업 장소도 알 수 없게 처리된다.

나. 수업 시작

1) 수업 시작하면서 설정을 변경한다. 먼저 ‘일시정지’했던 플레이 버튼을 터치하여(‘기록중’) 수업 전체를 녹화한다. 그러면 수업 종료 후 줌에서 나가면 자동으로 동영상 하나가 파일(zip0, zip1 등)로 만들어진다. ‘일시정지’ 않고 종료(정사각형 버튼)한 후에 다시 ‘기록’하면 두 개의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진다. 수업 중에 소회의실로 들어가서도 계속 녹화가 되므로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기록 상태로 둔다. 수업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 단, 비디오를 끈 상태에서는 학생들 얼굴이나 이름이 녹화되지 않기에 출결을 영상으로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출석은 수업 중에도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녹화(‘기록’)와 관련해서 가장 주의할 점은 녹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는다 거다. 수업 시작하면 플레이버튼을 누른다고 다짐해도 막상 수업 시작을 전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신을 차릴 여유가 없다. 따라서, 기억할 자신이 없으면 대기 시간부터 미리 ‘기록’을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예 동영상 파일을 만들지 못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영상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2) 수업을 시작하면서 설정을 변경할 것이 있다. 우선, 노트북 스피커 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켜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의 음소거 해제를 눌러 각자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어서 교사의 비디오 시작, 음소거 해제를 누르고 수업을 시작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교사의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대답을 요구한다. 대다수가 들리는 경우에도 한두 명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1학기를 겪었기에 대부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한두 명이 들리지 않는다고 채팅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학생의 핸드폰이나 컴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거의 다 해결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채팅으로 수업을 따라오게 한다.

3) 수업은 무조건 정시에 시작한다. 물론 정시가 되었는데 참가자 수는 10명일 수도 있다. 그래도 정시에 시작한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인사말이나 안내 사항을 설명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렇게 2-3분 정도 하다 보면 대다수 학생들은 입장할 것이다. 설사 입장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혹시나 학생들이 덜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온 학생을 대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혼을 낸다면 매우 큰 실수다. 들어온 학생들을 귀하게 보고, 칭찬하고, 한 명 한 명 더 챙겨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 4) 출석을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 방법, 참가자 명단을 보고 없는 학생만 호명하여 확인하는 방법, 일정한 출석 확인용 질문 틀에 맞춰서 확인하는 방법, 수업 끝날 때 출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을 쓸 건 아니고, 교과나 교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기를 권한다. 필자는 출석을 부르지 않았다. 1학기 중 초반에 2-3번 호명하는 방식으로 체크했다. 굳이 출석을 체크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수업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출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자료를 읽거나 발표를 할 때 말을 하기 때문이다. 또는 수업을 진행하다가 뜬금없이 수시로 이름을 불러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00이~~ 이해했나요?”라고 단순하게 묻거나, “99야~~ 샘 설명을 99가 이해한대로 친구들에게 설명해줄래요?”와 같은 방법이다. 2학기에는 출석확인용 질문 틀에 맞춰서 진행해볼 생각이다. 예를 들면 감정단어를 화면공유해서 각자 지금의 기분을 한 명씩 돌아가며 말하는 방식이다. 교사 개인의 성향이나 교과 상황, 그날의 수업 계획에 맞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면 좋겠다. 추가로 말하자면 본교 학생들은 출석을 가지고 속이거나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경우에도 학생들은 사실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 독서실에 있어서 말을 못 한다거나, 버스 안이라거나...
- 5) 수업 중에 사용하는 줌의 기능 중에 화면 공유와 화이트보드 및 주석 달기가 있다. 화면 공유는 수업 준비 세팅할 동안에는 ‘보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경험한 바는 없지만 광주 지역에서 악용된 사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가급적 특별히 필요한 상황에서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화이트보드와 주석을 참가자 모두가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 찬반 투표를 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할 경우에 교사를 포함하여 모두 같이 하나의 화이트보드에 필기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한 학생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이후 기능 자체를 줌 홈페이지 설정에서 없앴다. 교과, 교사, 수업학급의 관계 정도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다.
- 6) 교사가 하는 화면공유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특정 파일이나 프로그램만을 공유할 수도 있고, 노트북 화면 전체를 공유할 수도 있어 수업 진행에 가장 많이 쓴 기능이다. 먼저, 교과서를 공유했다. 전자 교과서 파일을 노트북에 깔아놓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할 때도 유용했지만 더 좋은 점은 교과서가 없다고 징징대는 학생들의 변명에 대처할 수 있다.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왔다고 하는 학생이 꽤 있다. 그러면 해당 교과서를 공유하여 핸드폰으로 촬영하라고 하면 더 이상 말이 없다. 두 번째로는 활동지를 공유했다. 교사들이 친절하게 등교수업 기간 동안에 온라인 수업에서 쓸 활동지를 만들어 미리 배부하지만 정작 실시간 수업을 하면 잃어버렸거나 교실에 두고 왔다는 등의 말들이 많다. 이 경우 화면 공유를 해서 사진을 찍거나 클래스룸에 활동지를 모두 다 올려두고 다운 받도록 하면 된다. 물론 프린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서 그려서 활동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활동지는 단순, 간결한 양식이 좋다. 물론 읽기자료, 지도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진으로 촬영 후 활동할 때 활용하되, 과제 양식은 단순, 간결해서 금방 그려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가 좋겠다. 세 번째 많이 사용한 경우는 논술방법을 알려줄 경우에 한글 파일을 화면공유했다. 논술 자체의 의미를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다. 한글 파일을 공유해서 교사가 직접 논술 시범을 보였다. 쓰고, 지우고, 바꾸어가며 논술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니 교실 수업보다 효과적이었다.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 과정을 화면공유했다. 학생들이 자료를 찾아 조사를 하라고 해도 어떤 검색어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 안내를 한 후 시범적으로 검색 과정을 그대로 공유한 후 모둠별로 검색과 토론을 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과제를 사진으로 찍어 화면공유했다. 제출받은 학생 과제를 화면으로

공유하여 구체적으로 피드백하니 학생들의 과제 이해도가 더 높아졌다. 특히, 학생들이 쓴 논술문을 공유하면서 피드백했을 때 반응도 좋았다. 또한, 드로이드캠으로 별도의 캠을 화면공유했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드로이드캠을 노트북과 핸드폰에 동시에 다운 받아 환경을 설정하면 노트북 캠과 같은 또 하나의 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드로이드 캠을 화면 공유하면 핸드폰으로 화상통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용된다. 필자는 다*소에서 핸드폰 거치대를 구입하여 위에서 책상을 내려다보게 고정한 후 백지에 사인펜, 매직으로 필기하는 식으로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화면 전체를 공유했다. 위의 모든 화면 공유는 노트북 화면 전체 공유를 하면 한꺼번에 가능하다. 이 화면 저 화면으로 수시로 갈아타며 진행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불필요한 화면까지 다 공유될 수 있어 사전에 노트북 바탕화면 정리가 필요하다. 또 에픽 펜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 전체 화면 공유에서는 에픽 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노트북 전체 화면이 아닌 한글만 단독 공유할 경우에는 에픽 펜을 사용해도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노트북 전체 화면을 공유할 경우 화면이 공유전과 후가 거의 똑같은 상태이기에 공유상태인지 아닌지가 헷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한참 설명을 하는 중에 학생들이 화면 공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에;; 동영상은 공유되어도 소리가 공유되지 않기에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영상의 위치를 확인한 후 각자 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7) 수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준비 시간에 2-3분 정도를 배치했다. 인사, 안내, 활동지 다운 등을 하는 시간이다. 도입하는 시간에 10분 정도 걸렸다. 이후 모둠활동 시간으로 15분 계획했으나 대부분 20분 이상 걸렸다. 전체 공유하거나 전체 토의하는 데 15분 이상이 걸렸다. 교실 수업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수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교실 수업은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고 학생들이 앉아서 교과서를 준비하는 데 대체로 5분 정도 걸린다. 줌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다. 또 종소리가 없기 때문에 50분이 지나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1학년 경우 50분을 넘기는 경우가 흔했고, 2학년의 경우 블럭수업에서 쉬는 시간 없이 100분을 하고도 2-5분을 더 하는 경우가 많았다. 줌 수업에서 50분을 강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2시간 블럭수업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도입, 안내 시간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어떤 경우에는 도입 시간에 과제와 교과서 설명을 길게 하다가 20분을 넘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의 모둠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길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상수업을 대신한 후 과제 제출로 연결하는 수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줌으로 20분 정도 강의를 한 후 줌을 종료하고 각자 과제를 해결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좋다고 본다. 줌을 한 차시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모둠 활동이나 짝활동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수업은 인사 및 안내(3분 내외) - 도입(10분 내외) - 모둠활동(20분 내외) - 전체공유(17분 내외) 순으로 진행되었다. 블럭수업의 경우 이런 순서를 두 번 반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8) 도입에서는 그날의 주제 안내, 활동내용 공유, 읽기자료 읽기, 주제 관련 배경 설명 등을 진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학생들이 주제와 과제를 이해하여 수업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물리적, 생물학적인 의미의 준비가 아니다. 교과서나 활동지는 안내에서 이미 확인이 끝난 상태이다. 학생들이 이 주제와 과제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은 교실 수업에서도 최대의 난제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이는 각 교과 선생님들이 교과와 개인에 맞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세부적으로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과제의 이해를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 교실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귀로 교사의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교실 수업에서 오늘 활동 주제와 과제를 안내한 후에 모둠으로 돌리는 순간 “야! 뭐하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고, 아무 말 없이 아는 것처럼 있다가 한참 후에

“뭐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 모둠을 다니는 교사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활동하는 모둠도 더러 발견한다. 화상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주제와 과제를 확인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 예를 들면 우선 모를 것으로 짐작되는 학생을 지명해서 “늦게 들어온 학생이나 잘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 모둠 활동에서 뭐하라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라고 묻는다. 그럼 집중팔구 “몰라요”라고 말한다. 물론 알아도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명 정도 그런 학생에게 묻는다. 그런 후에 교사가 다시 요약 설명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대신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한 명도 설명에 나서지 않으면 잘 알아들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학생에게 부탁한다. 두 명 정도 설명을 듣고 칭찬한 후에 다시 대답을 못했던 학생에게 물어본다. 대답을 할 것이다. 추가로 또 다른 학생에게 또 물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소회의실을 바로 열어 모둠 활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각자에게 맞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둠 활동 들어가기 전에 4인 1모듬의 경우 적어도 4명 중 2명은 주제와 과제를 이해한 상태에서 모듬이 시작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9) 모듬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랜덤, 수동, 절충 방식이다. 필자는 초기에는 랜덤으로 구성했다. 그날 그 시간마다 모듬 구성원이 달랐다. 학급마다 정도가 다르긴 했으나 대체로 교실 수업과 비슷하게 모듬 활동이 진행되었다. 교실 수업에서도 7개 모듬별로 활동을 진행하면 초기에는 대체로 2개 모듬은 활발하고, 2개 모듬은 조용하고, 3개 모듬은 그 중간 정도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다가 점점 더 협력적 관계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활발한 모듬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발전한다. 교실 수업과 비교할 때 줌 수업에서의 모듬활동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발전해갔다. 다만 교실 수업과 조금은 다르게 접근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다양한 모듬 구성 방식을 활용했다. 랜덤, 고정, 절충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실 수업에 비해 더 효율적이었다. 교실에서는 모듬 구성원이 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줌에서는 랜덤 구성을 1초만에 할 수 있기에 편했다. 랜덤과 고정을 두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느 한 학급의 경우에는 랜덤 방식을 더 선호할 정도였다. 이유는 아직 얼굴도 잘 모르는 상태이니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점과 아무 말도 안 하는 학생들과 한 번 같은 모듬이 되어서 한 달을 함께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점에서 학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의 수준에 도달했다면 줌 수업에서는 랜덤 방식의 운영도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고정 방식을 운영했다. 온라인 개학 한 달 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고정방식을 도입했다. 찬반 의견이 분분했으나 다수 학급과 다수의 학생이 고정 방식을 찬성했다. 물론 한 달 정도만 고정한 후에 다시 바꾸는 방법을 선호했다. 고정방식은 관계가 편한 사이면 안정적이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그 모듬 학생 2명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모듬 활동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출석률이 저조한 세계사□반의 경우에는 고정모듬 방식이 무의미했다.

그래서 절충방식을 활용했다. 이는 다음에 설명할 ‘모듬 진행자’를 고정하되 멤버는 랜덤으로 돌리는 방법이다. 기술적으로는 모듬 진행자 수대로 소회의실을 랜덤으로 만든 다음 모듬 진행자만 겹치지 않도록 수동으로 이동시키거나 교환하는 방법이다. 물론 수업 대기 시간에 미리 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학생은 수업 도입하면서 할당하거나 재배치하면 금방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불참했을 경우 쓰기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소회의실을 만들 때는 원래의 모듬 수보다 많은 회의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비워둔 상태로 할당하면 효율적이다.

나) 교실 수업에서는 보통 4인 1모듬이 적절하다고 한다. 줌 수업에서는 5-6인 1모듬도 좋다고 본다.

교실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 4인 모둠에서 2명이 그런 상태라면 진행하기가 어렵다. 5-6인이면 적어도 3명 이상은 대화에 참여하기에 진행에 무리가 없다. 그리고 말 없는 2-3명도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4인 1모둠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다) 모둠 진행자를 지원받아 운영했다. 줌 수업 한 달을 하면서 모둠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극적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었다. 물론 대체로 7개 모둠이면 4-5개 모둠은 활발했고, 어떤 학급의 경우 한 개 모둠을 제외하고 모든 모둠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원했기에 그 대책을 학생들과 논의하던 중 모둠 진행자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소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말하라고 시켜주길 원했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까 다들 가만히 있다가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5개 학급 중 4개 학급이 모둠 진행자를 둔 이후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모둠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모둠 구성원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학생들의 배움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역할을 부여하는 편이 배움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줌 수업에서 이를 적용해 본 후 학생들과 함께 내린 결론은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진행자'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학생들이 더 잘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진행자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교과 내용에 능통해 잘 아는 학생이어서 다른 모둠원을 가르친다는 이미지를 자신이나 모둠 학생들 모두가 요구하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말 그대로 진행자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시작해볼까?', '누구 먼저 말해볼래', '다 했니?'와 같은 말로 모둠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라) 소회의실로 학생이 입장한 후 약간의 시차를 둔 후에 필자가 각 모둠을 방문했다. 물론 모둠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바로 입장했다. 시차를 둔 이유는 각 모둠별로 눈치를 보고, 모둠 과제를 공유하고, '시작해볼까?'라는 말이 나오면서 서로 적응할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수업 시작 후 30명이 입장해서 수업 안내를 듣고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소회의실로 들어가면 달라진다.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들이다. 물론 더 막 나가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모둠원들의 발언 요청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편이다. 사실상 이때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몇몇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둠에서 일정한 학습 준비 상태를 가지라는 의도에서 시차를 두고 모둠을 순회한다.

마) 모둠을 도는 순서는 가장 걱정되는 모둠부터 들어간다. 온라인 개학 후 2주 정도 지나자 모둠별 명단을 보면 어느 모둠에 누가 어떤 상태일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다. 그 모둠에 가서 그 학생을 먼저 건드렸다. 다만 주의할 점은 모둠에 들어가자마자 교사가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가 입장해 보면 아무 말 없이 뭘 하는지 모르는 모둠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뭔가를 주고받다가 잠시 각자 자료검색하거나,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나, 한 학생의 답변을 조용히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들어가자마자 본 상태를 보고 오판해서 지적하는 경우 모둠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조용할 경우에는 진행자에게 상태를 물어본 후 피드백을 하고 다른 모둠으로 이동한다. 몇 번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 모둠에 어려움이 있는지 금방 파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모둠부터 들어가서 피드백을 하니 모둠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활발한 모둠의 경우 질문이 있기에 1시간에 한 번은 꼭 입장해서 관찰해야 한다. 특히 엉뚱한 방향으로 모둠 활동을 하는 경우나 오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입장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모둠이 활발할수록 질문이 꼭 있었다. 활발한 모둠의 경우에도 한

명이 말없이 있을 수도 있다. 짐작될 경우 찾아가서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진행자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바) 모둠을 종료할 경우에는 미리 시간을 안내하였다. 사전에 15분 모둠 활동을 주는 경우에도 모둠을 다니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에는 메인에서 소회의실 브로드캐스트에서 메시지를 보내 '소회의실 종료 5분 전' 등으로 알렸다. 또 모둠 활동 종료 3분전, 1분 전과 같은 메시지로 모둠 활동을 모둠내에서 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 모둠별로 과제 진행 속도가 달랐다. 교실 수업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6개 모둠에서 4개 모둠 정도가 활동이 완료되면 소회의실 문을 닫았다. 6개 모둠 전체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다 못한 모둠은 전체 공유시간을 통해 과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과제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다 못 끝낸 모둠에게 발표 기회를 먼저 주기도 했다.

아) 소회의실로 들어가고 나갈 때 많이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입장하거나 종료할 때 갑자기 끊기거나 튕겨 나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기술적인 문제이니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학생의 잘못이 아닌 경우이다. 특히, 전화가 오거나 안전문자가 뜰 경우 핸드폰으로 수업을 하는 학생의 접속이 자동으로 끊어진다. 상황에 맞게 못 들은 부분을 다시 안내하거나 소회의실로 다시 할당하거나 재입장시킨다.

자) 지각하는 학생들이 있다. 소회의실 활동 시작하기 전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급우들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바로 소회의실에 입장해도 모둠에 참여하는 데 크게 문제없다. 소회의실 활동 시작 후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주제와 과제를 설명한 후 모둠에 함께 들어가 안내를 하고 연결한다.

10) 전체 공유 및 토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가) 전체 공유는 모둠별 의견을 모아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모둠 내에서 활동을 하고 토의하는 경우에도 서로가 대화 상대가 되기는 하나 모둠 의견을 하나로 합치게 하지 않았다.

나) 발표나 토론은 철저하게 원하는 사람이 발표하도록 기다리면서, 배움의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듣고, 연결하고,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학생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적극적인 공유를 촉진하는 말을 수시로 시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하고 토론하며 배우도록 이끄는 교사의 역할은 끊임없는 노력과 수련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대체로 한 시간에 최소 5명 정도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발표한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고민이 늘 함께 할 것이다. 먼저, 말하는 학생들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말하는 학생들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도 있고, 그 학급의 관계적 특성도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성격적 특징도 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교사의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본다. 10명 내외가 전체 공유 시간에 발언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나머지 학생들도 충분히 들으며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배우고 있다. 실제로 토론이 끝난 후 소감을 쓰라는 활동지를 보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학생들이 친구들의 토론을 듣고 처음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거나 전혀 다른 관점의 주장에 헛갈린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말을 직접 하지는 않다고 해서 배우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수의 학생들만 말한다고 해서 낙담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우선 집단 전체의 관계가 안전하고 친밀한 정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언하는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교실 수업이나 줌 수업에서 관계만들기에 계속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사회자와 촉진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에 있다. 사회자는 참가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교사는 사회자의 면도 갖춰야 하는데 특히,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자로서의 교사는 말을 최소한으로 해서 학생들의 말로 수업시간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들이 수업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촉진은 그들이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공감과 수용, 질문, 지지와 격려, 인정과 칭찬, 때로는 지적도 하는 것이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교실 수업이든 줌 수업이든 사회자와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교사 자신의 마음 관리와 함께 끊임없이 연마하며 갖추어야 할 자세와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다) 대화 방식을 다양하게 조직한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바로 전체 앞에서 발언하라고 하면 힘들 수 있다. 대부분은 혼자 속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 다음으로는 짝끼리 대화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모둠 안에서 대화하는 방식이다. 가장 어려워하는 방식이 전체 앞에서 말하는 방식이다. 2학년 세계사 수업에서는 짝 활동을 가장 편하게 생각하며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 물론 상대가 특별히 어려운 상대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이다. 그래서 짝 대화 - 모둠 대화를 거친 후에 전체 앞에서 발표하는 방법으로 이어갈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교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1) 수업이 50분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되돌아보면 이 부분은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수업 시작을 정시에 하는데 예정된 시간을 넘기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2학기에는 무조건 정시에 또는 정시 이전에 마치려고 한다. 수업을 마치며 해야 할 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 수업 후

1) 전 차시에 지각하거나 결석한 학생들은 따로 남겼다. 지각, 결석한 이유를 묻고 보충과제를 다시 안내하고 출석을 다짐받았다. 매일 이런 학생들을 챙기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결석을 해도 왜 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학기 초에 결석, 지각 학생들을 따로 남겨 상담하는 시간은 추천한다.

2) 가끔 학생들이 나가지 않고 스스로 남는 경우가 있다. 교사와 더 대화하고 싶은 경우다. 수업 내용에 관한 이야기, 자신의 학습능력에 관한 이야기 등을 말하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학생이다. 길게는 20분 정도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다. 모둠 진행자만 따로 남겨 수업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수업 중에 비공개채팅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남기거나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일대일로 줌 수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수업 후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3) 수업이 끝나고 모든 학생이 나가면 줌을 종료한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꽤 걸린다. 블럭수업의 경우는 더 많이 걸려 연강인 경우 영상을 만드는 중에도 수업을 시작해야 하기도 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정도 걸린다. 이때 랜선을 빼면 안 된다.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에 수업계획서를 정리했다. 결석한 학생의 보충과제를 공지하고 클래스룸에 과제를 게시하면서 동시에 이알리미로 문자를 발송했다. 이 작업을 이때 하지 않으면 이후 정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4. 수업 평가

지필 평가 후 수업 평가 설문조사와 수업 평가 토론을 진행했다. 1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80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부분 줌으로 진행한 모둠 활동과 토론 수업을 진행한 점을 가장 인상 깊은 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줌 수업, 영상 및 과제형 수업 비중을 1 대 2로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1-2교시에 실시간 수업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 안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하는 게 힘들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일부의 학생들은 줌으로는 이론 수업이나 영상으로 강의하는 수업을 하고, 교실 수업에서 모둠 활동과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반면에 줌 수업과 토론 시간을 더 늘려 달라는 일부 학생도 있었다. 수업에서 발표하거나 모둠 친구들과 의견나누기가 40퍼센트의 학생들이 '보통이다'거나 '어렵다'고 한 반면에, 수업을 통해 협력하는 태도가 길러졌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77퍼센트나 되었다.

필자의 평가를 포함하여 이를 정리하자면 먼저, 한국사 수업은 '토론'과 '줌'이라는 두 단어로 기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 또한 한국사 수업을 그렇게 이해했다. 줌 수업을 통해서도 모둠 활동과 토론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는가?'라는 설문에도 79퍼센트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글쓰기 능력도 74퍼센트의 학생들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이로 볼 때 줌을 통한 실시간 화상수업이 토론과 논술로 한국사를 배우는 수업의 성공에 교실 수업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개선할 점 또한 분명하다. 학생들은 오전 시간대의 줌 수업에 접속하기를 매우 힘들어한다. 당위적으로는 '오전 오후가 무슨 상관이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맞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대 2의 줌 수업 비중과 오전 시간 줌 수업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영상으로 수업 내용을 강의하는 영상을 요구하고 있다. 1학년 한국사의 경우 이 점을 반영하여 2학기에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세계사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나 수업 평가 토론에서도 한국사와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참여 정도를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주고 있다. 수업을 통해 생각하는 힘이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발표하거나 모둠 친구들과 의견 나누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으며 급우들과 협력하는 태도가 길러졌다고는 보지 않았다.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세계사 수업의 가장 인상적인 면은 '토론'과 '줌' 두 단어로 요약하였다. 2학년 역시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었고, 토론과 글쓰기가 많아서 적응하기 힘들니 조금 줄여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동시에 줌으로만 하지 말고 영상으로 대신하는 수업도 일부이긴 하지만 제안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 대다수가 논술형 지필 평가의 난이도가 보통이었다고 대답했다. 영상 수업을 요구한 경우가 매우 적었다는 점 외에는 대체로 1학년의 평가와 대동소이했다. 특이한 점은 2학년의 경우 수업 중에 많이 활용했던 짝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모둠 활동보다도 오히려 짝 활동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방식이 공부하기가 편했다고 답했다. 반대로 일부 학생의 경우 상대를 잘못 만났을 경우 힘든 상황을 생각해서 모둠에서 짝 활동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토론이 끝난 후에 말하지 않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2학기 세계사 수업은 줌으로 할 때 1학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화상 수업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전 시간이라 하더라도 블럭수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영상 수업으로 2시간을 대신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또한 2학기에는 2학년 온라인 수업이 2주 정도에 불과해 참여 부담도 덜한 편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짝 활동을 보다 많이 배치하여 학생들이 정리한 대로 한 개의 주제 수업을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7-10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 안내 수업 - 사실 이해 수업 - 자료조사 수업 - 토론 수업 - 글쓰기 수업. 다만, 오전 시간을 피하고, 강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 수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5. 제언

위와 같은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줌 수업을 하며 고민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가 줌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은 실시간 화상 수업이 교실 수업과 같은 수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실시간 화상 수업이 원격수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수업의 방식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필자의 경험과 학생의 반응을 통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교사가 다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기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이를 그대로 반영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교사들이 각자의 교과 특성, 개인적 성향, 수업 주제와 내용, 상황적 맥락 등에 맞게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만약 화상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시간표를 실시간 수업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수업 준비와 수업 종료 후 모두 20분의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7시간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7시간을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수업 집중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 교사들의 협의를 거쳐 하루 중 주로 오후 시간대에 2-3시간의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영상 등의 수업으로 하는 것도 연구해볼직하다. 또한, 하루 7차시의 영상 및 과제 수업을 오전에 한꺼번에 업로드하고, 그날 하루 수업 교과 중 실시간 화상 수업을 희망하는 교과나 교과 수업의 경우 12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 상관없이 별도의 시간표를 작성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한 대안이다. 그래도 전 교사가 전체 교과 시간을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한 시간 50분 전체를 실시간으로 하기보다는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과제를 줌으로 안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생 개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실시간 수업을 전면적으로 또는 확대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출석 체크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서로 합의를 거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다가도 다른 손쉬운 과제를 해결하여 출석이 보장되면 출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시간 수업의 의미를 매우 약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세계사○반의 학기말 근태나 세계사□반의 중반기 근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쉽게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잔다.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긴 시간을 들여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고 공유하여 실시간 수업의 경우 교실 수업과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근태를 체크하면 학생들의 출석률은 높아질 것이다.

온라인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불참 학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수업을 사실상 거부하는 학생이다. 1학년 김*환, 정*영, 이*호, 2학년 서*하, 정*재, 윤*훈 같은 학생이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수업에 불참한다. 예를 들면 김*환의 경우 아무런 불참 이유가 없이 대놓고 불참한다. 부모의 지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 단 한 번 접속했을 때 노래방이라며 수차례 노래를 불러 줌에서 제거한 적이 있다. 정*영이 불참하는 이유는 '귀찮다'이다. 교실 수업에서도 학습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 교과서를 펴는 것도 '귀찮다'며 거부한다. 윤*훈의 경우 대부분 출석했으나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졸업장 따려고 학교 온다'며 다른 모든 학습 활동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도 이렇게 된 사연이 있다. 그 학생들의 사연을 이해하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교육적으로 수용하며 대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을 수용하는 것은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람은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되, 행동은 바로바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온라인 수업에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학교 규정상의 조치도 없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이다. 이유는 게으르거나 무기력하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다. 1학년의 경우 김*성, 김*기, 방*호, 2학년의 경우 김*윤, 심*보, 김*희를 예로 들 수 있다.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불참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학생은 교실 수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케어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온라인 수업이라는 조건에서 더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학생이다.

온라인 수업 하에서도 이들 학생들을 오프라인 시스템(개인 상담, 기초학력 교육, 온라인 중 오프라인 특별 교육 등)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진로 개척형 불참 학생이다. 1학년의 이*선, 2학년의 박*서, 정*서의 경우다. 이*선은 프로그래머로 진로를 정하고 맹렬히 게임을 연마하고 있다. 2학년 두 학생의 경우 졸업 후 곧바로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거의 매일 저녁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 수업에 들어올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석하면서도 떳떳하다. 근본적으로는 입시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의 원래 방향을 찾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학부모, 학생, 교과 교사가 함께 모여 학교 교육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일시적 불참 학생이다. 이들 학생은 교사의 교육 노력, 학교의 온라인 수업 출석 처리 규정, 결석 보충 과제, 학부모의 개입 정도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협의와 합의, 공유 절차를 통해 보다 분명하고 엄격하면서도 교육적인 출석 처리 기준 마련과 처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수업 나눔 시스템의 구축과 일상적 수업 대화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 달 정도의 온라인 수업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수업 자체에 대한 고민이었다. 수업을 왜 할까? 수업 내용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할까? 무엇을 위해 평가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 관계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까? 교직 생활 내내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왔다. 교실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기술적 환경에 적응되고 난 후 고민은 도돌이표로 되돌아와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오래된 질문에 딱 떨어지는 명쾌한 정답은 없다. 그럼에도 확실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질문에 대한 고민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질문의 깊이나 답의 차원이 높아지고 심화된다는 점이다.

사실 1학기에는 필자 또한 수업 고민이 있어도 수업 나눔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에 바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느라 수업 이야기를 더 나눌 여력이 없었다. 그런 덕분일까? 1학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어느새 원격수업 교사가 되어있었다.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는 교사들이 또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다.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원격 수업의 기술적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본다.

이렇게 기술의 ‘태풍’은 지나갔다. 이젠 ‘수업’의 시간이다. 3-4월의 그 혼란 속에서 집단지성과 협력적 자세로 원격 수업을 만들어갔던 그 열정과 에너지로 수업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제안한다. 전체 교사들이 코로나 사태에 맞는 체계적인 수업 나눔 시스템을 만들어 서로의 수업을 통해 일상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수업에서 홀로 외롭지 않기를, 혼자만의 고민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코로나를 이유로 묻어두지 않기를 바라며...

※ 첨부

- 1. <표1> 한국사0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 2. <표2> 한국사@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 3. <표3> 세계사□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 4. <표4> 세계사△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 5. <표5> 세계사○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 6. <표6> 한국사0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학생 제출 활동지

<표1> 한국사 0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한국사0반 월/일/시	수업 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4/20/6	수업 안내	영상(obs로 녹화)	27명 중1명 최종 미제출	
4/21/6	자기소개 연표설명	제시된 틀에 따라 자기 소개하고, 대원군 집권의 배경을 드로이드캠으로 강의	3명 결석 (김*환/인*호/정*영)	밝은 분위기. 송*섭 마이크문제로 자 기 소개 못함.
4/22/2	흥선대원군 개혁정치 평가1 (대원군 평점 토 의)	추가 자기 소개함. 대원군 개혁정치 설명. 개혁정치 평가 모둠과제(드캠). 전체공유 2번까지함. 4인 1모둠 랜덤으로 편성.	1명결석(김*환) 지각1명(김*희)	4명 발표. 모둠 활동 아쉬해함. 2개 모둠 채팅으로 활동.
4/27/6	흥선대원군 개혁정치 평가2 (대원군 평점 토 의)	지난 시간 모둠 활동 다시 진행. 4인 1모둠 랜덤. 전체 공유 진행해서 평가 완료	2명 결석 (김*환/정*영) 2명 지각 (이*희/조*성)	11명이 17회 발표 발표 매우 적극적. 분위기 밝음.
4/28/6	통상수교 거부 정책 평가 (설문조사토의)	교과서 내용설명 15분. 모둠별 교92쪽 활 동하기. 전체 공유	3명 결석 (김*환/정*영/염*은)	녹화 금지 경고 8명 13회 토의
4/29/2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 모 의 재협상하기)	강화도조약 교과서 설명. 조약 재협상 상황 에서 개정안 준비 모둠 활동. 전체 가상 재협상 토의	4명 결석 (김*욱/김*환/인*호) 1명 지각 정*영(전체 토의 시간에 출석)	7명 11회 토의 모둠에서 즐겁게 활발하게 참여
5/4/6	조미조약과 조선책략 (조선책략을 읽 고 드는 기본?)	조선책략 읽고 느낌과 생각 개별로 쓴 후 전체 공유. 조미조약 설명 후 종료 계획한 보빙사 토론 못함.	3명 결석 (김*환/염*은/이*원(질병)) 1명 지각 (정*영)	9명 9회 발표 조선책략 내용 이해 못해 과제 이해 가 되지 않아 시간 오래 걸림.
5/6/2	개화 정책과 임오 군란 (보빙사의 활동 평가)	보빙사 안내-모둠토의-전체 토의-개화 정 책 설명-마인드맵 활동	3명결석 (김*욱/김*환/이*원(질병)) 1명 지각 (인*호)	6명 7회 발표 마인드맵 활동은 적절하지 않음. 내용 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형식적 활동.
5/11/6	위정척사의 주장 을 어떻게 볼 것 인가?	안내-모둠 활동-전체 토의 (교100쪽 자료 활용)	1명 결석(김*환) 1명 지각(김*준)	7명 7회 토의
5/12/6	임오 군란/개화 파(나라면 어떤 선택했을까?)	모둠 토의 주제 안내-임오 군란과 개화파 분화 설명-모둠 활동-전체 토의	1명 결석(김*환)	10명 10회 토의 7개 모둠 중 5개 모둠 활발. 적극적 매력적 과제에 대한 고민!!!
5/13/2	갑신 정변이 실 패한 이유는 무 엇인가?	안내-정변 설명-모둠 토의	4명 결석 (김*욱/김*환/김*영/인*호) 1명 지각(이*원)	3명 3회 발표 설명과 안내에 20분소요-모둠 활동 짧아. 활동 과제 1개완료. 어떻게 하면 짧고 굵게 설명할까?

한국사0반 월/일/시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5/18/6	갑신정변 평가 (논술)	윤웅렬의 갑신 정변 실패 이유에 대한 전체 토의-갑신 정변 평가-논술 과제 및 방법 안내-교과서 설명-클래스룸 과제 제시	2명 결석(김*환/김*희) 2명 지각(김*욱/정*영)	6명이 12회 토의 과제 미제출자 수업 종료 후 안내 (김*욱/안*호)
5/19/6	동학농민운동1 (전개도 완성)	동학 주요 사건 설명-모둠으로 동학농민운동 전개도 완성하기-전체 공유	2명 결석(김*환/지*유) 정*영(친구집, 교과서) 이*희(독서실-집 인테리어로) 김*준(말없어.학원에서.폰 약해서)	모둠 시작부터 같이 대화하며 활동하기 강조 1개 모둠 외에 모든 모둠 활발하게 대화하며 활동해 과제 완료함. 정답 확인하는 내용으로 지명 발표
5/20/2	동학농민운동2 (단계별 목표와 의미)	연표 설명(아이캔노트)-교과서 설명-모둠 과제 안내-모둠 토의-전체 공유	2명 결석(김*환/안*호)	6명 9회 발표 종료 후 정*영/지*유/김*욱 근태 이유 및 보충 과제 확인
5/22/5	동학농민운동3 (어떤 명칭이 타당한가?)	과제 안내-읽기자료 읽기-모둠 토론-전체 토론-논술 과제 안내	1명 결석(김*환)	전체 모둠 토론 재밌게 함. 7명 12회 토론 종료 후 김*욱/안*호/정*영 과제 관련 면담
5/25/6	갑오을미 개혁 (단발령을 어떻게 볼까?)	연표 설명(아이캔노트)-모둠별 개혁안 분류 및 평가 활동-전체 공유	1명 결석(김*환)	6명 9회 발표 단발령에 대한 평가의 이견이 흥미로움.
5/26/6	갑오을미 개혁 평가(자율적인가? 타율적인가?)	주제 공유-자료 읽기-개별 활동-모둠 토의-전체 토의	1명 결석(김*환)	6명 10회 토론 김*욱 교과서 읽으라고 하자 옆 친구에게 쌍욕. 전체 학생 들음. 이후 모둠에서 자발적 사과-전체 토의 후 사과함.
5/27/2	명성황후 평가 (민비인가? 명성황후인가?)	토의 주제 안내-관련 영상 각자 보기-개별 활동-모둠 토론-전체 토론	3명 결석(김*욱/김*환/염*은) 4명 지각(김*성/안*호/정*훈/정*영)	김*희 모둠. 전체 활동 전후 줌 나갔다 들어옴. 6명 10회 발언 박*연 긍정 입장에서 끝까지 토론 4명 집중 반박. 지각생 김*성 개별 활동
6/1/6	독립 협회1	영상(줌으로 교과서 위주 설명 촬영)	결석 처리 (김*성/김*욱/김*환/정*영)	
6/2/6	독립 협회2 (신문의 날을 바꿔야 하나?)	과제 안내-자료 읽기-개별 활동-모둠 활동-전체 공유	2명 결석(김*환/양*민)	영상 수업과 줌 수업 의견 수렴함. 줌 수업-김*영/김*준/지*유/정*훈 영상 수업-김*욱/김*환/김*성
6/3 이후	<p>등교 수업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반에서는 영상 수업 의견이 다수, 1반은 실시간 수업 의견이 다수여서 영상 수업 2시간, 실시간 수업 1시간씩 진행하기로 정함. 모둠 진행자를 5-6명 선발해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을 받아 정함.</p>			

한국사0반 월/일/시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6/10/2	독도와 간도 (독도는 우리 땅인가?)	과제 안내(일본 주장 설명)-모둠 자료 조사 활동-전체 토론	5명 결석 (김*성/김*욱/김*환/정*영/지*유)	녹화/기록 못함. 활발하게 토론함. 모둠 진행자 선발 이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평가를 받음.
6/15/6	의병운동	영상	4명 결석 처리 (김*성/김*욱/김*환/정*영)	
6/16/6	애국 계몽 운동	영상	4명 결석 처리 (김*성/김*욱/김*환/정*영)	
6/24/2	애국 계몽 운동 평가(계몽 운동 과 의병 운동 중 어떤 운동을 우선할까?)	애국 계몽 운동의 장단점 개별 조사-전체 공유-모둠(애국 계몽 운동 평가)-전체 토의	3명 결석 (김*욱/김*환/정*영) 김*성 미리 말하고 개인 사정 으로 수업 시작 후 30분경 퇴 장	6명 11회 발언 재난 문자, 전화가 와서 접속이 끊김.
6/29/6	경제적 구국 운동	영상	4명 결석 처리 (김*성/김*욱/김*환/정*영)	
6/30/6	조선의 왜 일본 의 식민지가 되 었는가?	2차 논술 수행 평가 주제 토론 주제 안내-모둠 준비-떼 토론	3명 결석 처리 (김*성/김*환/정*영)	6명 20회 발언
7/8/2	무단 통치	영상	4명 결석 처리 (김*성/김*욱/김*환/정*영)	
7/13/6	1910년대 독립 운동	영상	4명 결석 처리 (김*성/김*욱/김*환/정*영)	
7/14/6	문화 통치 (문화 통치는 왜 기만적인가?)	과제 안내-자료 읽기-모둠 활동-전체 토의 교사가 일본 입장 역할. 학생들은 한국인 역할 토론.	3명 결석 (김*성/정*영/지*유)	김*환/김*욱 노래방. 김*환 모둠에서 노래방 노래 소리 수 치레 들려줘 줌에서 제거함. 전체 공유에서 박*연/조*성/김*영/송 *섭 적극 발언)
7/22~7/28	2,3학년 2차 지필 평가 기간으로 시험 전체 범위 학습지를 아이캔노트로 설명하는 영상으로 수업을 대신함.			

<표2> 한국사@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한국사@반 월/일/차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4/20/6	수업 안내	obs로 녹화	26명 전원 과제 제출	
4/21/1	자기 소개/연표 설명	제시된 틀에 따라 자기 소개하고, 대원군 집 권의 배경을 드로이드캠으로 강의	4명 결석(감*기/감*원/이*빈/이 *호)	
4/22/4	흥선대원군 개혁 정치 평가(대원군 평점 토의)	추가 자기 소개함. 대원군 개혁정치설 명 개 혁정치 평가 모둠과제(드캠). 전체 공유 2번가 지함. 4인 1모둠 랜덤으로 편성.	5명 결석(감*윤/아*선/아*형/임 *민) 1명 자기 소개후 나감 수업 후 4시에 결석생 5명 다시 초대해 과제 안내함.	3명 4회 발언 수업 시간을 잘못 이해해 늦거나 결석 했다고 다수가 말함. 이*호 부동산 중개사 시험 준비한다며 별도 과제 제출하겠다고 통화 전체적으로 발언 소극적, 늦게 들어오 고, 혼란스러움. 이*빈/감*림 적극적.
4/23/2	흥선대원군 개혁 정치 평가(대원군 평점 토의)	연표(드캠)로 평가 이유 설명. 자란 시간 내용 이어서 진행함. 지명 발표로 1-3내용 공유. 나머지 내용 4인 1모둠 랜덤 구성 활동. 전체 공유 진행해서 평가 완료.	2명 결석(이*호/아*빈) 3명 지각(감*원/감*윤/아*형)	6명 7회 발언.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 여하는 학생 있음.
4/28/6	통상수교 거부정 책 평가(설문 조사 토의)	교과서 내용설 명 15분. 모둠별 교92쪽 활동 하기. 전체 공유	5명 결석 (곽*엽/감*기/이*선/이*빈/아 *형/이*호)	8명 12회 발언 적극적으로 발언함. 참여 시간 제한 안내. 녹화 금지 다시 안내
4/29/4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모의 재협상하기)	강화도 조약 교과서 설명. 조약 재협상 상황 에서 개정안 준비 모둠 활동. 전체 기상 재협 상 토의	2명 결석(아*선/아*호) 1명 지각(아*빈)	7명 12회 발언 아*빈 40분쯤 입장. 주의 줌. 전체적으로 반응이 적어 아쉬움. 토론 때는 적극 발언함. 도입에서 아이스브레이킹 고민 이*현이 구글 댓글로 '민비'라고 말해 도 되냐고 질문함.
5/6/4	조미 조약과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을 읽 고 드는 기분은?)	조선 책략 읽고 느낌과 생각 개별로 쓴 후 전 체 공유. 조미 조약 설명 후 종료 계획한 보빙사 토론 못함.	4명 결석 (감*기/이*호/아*선/임*민)	7명 8회 발표 0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임.
5/7/2	개화 정책과 임오 군란(보빙사의 활 동 평가)	보빙사 안내모둠 토의-전체 토의-개화 정책 설명-마인드맵 활동	3명 결석(감*기/방*서/아*호) 1명 지각(오*균) 수업 후 3명 과제 제출 안내	6명 7회 발표 주제와 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에 모둠 시작하기. 모둠 활동 시간이 부족. 마인드맵 예시를 제시할 필요 과제 형식에 대한 가시적, 체감적 안 내가 필요함.
5/12/1	위정척사의 주 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안내모둠 활동-전체 토의 (교100쪽 자료 활용)	2명 결석 (아*빈/이*호) 수업 후 3명 과제 제출 안내	6명 6회 토의 발표 분위기 소극적. 1교사라서? 학급 분위기?
5/13/4	임오 군란/개화파 (나라면 어떤 선 택했을까?)	모둠 토의 주제 안내-임오 군란과 개화파 분 화 설명-모둠 활동-전체 토의	4명 결석 (감*림/감*기/감*원/아*호) 아*빈 모둠 활동 중 나갔다가 들어옴(와이파이 문제)	7명 7회 발언 매끄러운 진행과 리드, 설명 필요 매력적인 모둠 과제 개발 필요
5/14/2	갑신 정변이 실패 한 이유는 무엇일 까?	안내정변 설명-모둠 토의 토론 마무리 못해 차시 이야기기로	3명 결석 (방*호/이*형/이*호) 아*형 중간에 반응 없어 제거. 2차 모둠에 다시 입장	7명 8회 발표 고정 모둠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 댓글 로 수렴하기로 함.

한국사@반 월/일/시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5/19/1	갑신 정변 평가 토론 및 논술	토론 안내-모둠 토론-전체 토론-교과서 설명-논술 안내	4명 결석 (김*기/이*선/이*호/임*민) 임*민은 접속 후 졸았다고 확인. 수업 후 김*림/방*서 과제 안내	7명 14회 발언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토론함. 수업 7분 더 진행함.
5/20/4	동학 농민 운동1 (전개 과정)	동학 주요 사건 설명-모둠으로 동학 농민 운동 전개도 완성하기-전체 공유	2명 결석 (이*호/이*빈) 김*기 피씨방에서 수업 참여 위해 개인 상담 후 별도 보충 과제 안내	8명 이상이 체크된 것만 11회 이상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전체 공유과정에 참여함. 수업 6분 더 진행함.
5/21/2	동학 농민 운동2 (단계별 목표와 의미)	연표 설명(아이캔노트)-교과서 설명-모둠 과제 안내-모둠 토의-전체 공유-교과서 본문정리	4명 결석(곽*엽/김*기/방*서/이*호) 수업 후 이*선/이*빈 보충과제 안내	4명 5회 발언
5/22/7	동학 농민 운동3 (어떤 명칭이 타당한가?)	모둠 사전 할당-과제 안내-읽기자료 읽기-모둠 토론-전체 토론-논술 과제 안내	6명 결석 (김*기/이*선/이*빈/임*민/최*연/이*호) 방*서 지각, 밖이라 전체 토론만 들음. 김*원 마이크 이상으로 개별 활동. 수업 후 곽*엽/방*서/김*기/이*선 과제 재안내	7명 8회 발언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교환되면서 학생들 다수 불참. 모둠 토의-전체 토의 모두 운동으로 정리되어 추가 토의가 안 됨. 3모둠의 혁명 입장도 이*빈의 말에 운동으로 바꿈. 임*영은 민란으로 이*경 모둠은 빨리 끝내고 조용. 나머지 모둠은 대체로 잘함.
5/26/1	갑오을미 개혁 (단발령을 어떻게 볼까?)	연표 설명(아이캔노트)-모둠별 개혁안 분류 및 평가 활동-전체 공유	6명 결석 (곽*엽/김*기/임*희/이*빈/임*민/이*호)	5명 5회 발언 적지만 적극적인 참여 태도 보임. 과제2는 임*영의 단발령만 있음. 이*진이 갑오 1차 개혁 중 '의정부 권한 집중' 알려줌.
5/27/4	갑오을미 개혁 평가(자율적인가? 타율적인가?)	주제 공유-자료 읽기-개별 활동-모둠 토의-전체 토의	3명 결석 (김*기/오*균/이*호) 3명 지각 (문*희/임*민/김*원)	6명 8회 발언 모둠 토의가 잘 안 됨. 전체 토의 활발. 더 많은 칭찬, 격려, 장치가 필요.
5/28/2	명성 황후 평가 (민비? 명성황후?)	토의 주제 안내-관련 영상 각자 보기-근거 찾기 개별 활동-모둠 토론-전체 토론	2명 결석(김*기/이*호)	8명 12회 발언
5/29/7	독립 협회	영상(줌으로 교과서 위주 설명 촬영)	4명 결석 처리 김*기/방*서/임*민/이*호	
6/2/1	독립 협회 평가 (신문의 날을 바꿔야 하나?)	과제 안내-자료 읽기-개별 활동-모둠 활동-전체 공유	3명 결석(김*기/이*선/이*호) 1명 지각(김*윤)	영상 수업 소감 듣고 줌 수업 의견 수렴함. 9명 적극적으로 발언함.
6/3 이후	등교 수업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에서는 영상 수업 의견이 다수. 0반은 실시간 수업 의견이 다수여서 영상 수업 2시간, 실시간 수업 1시간씩 진행하기로 정함. 모둠 사회자를 5-6명 선발해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을 받아 정함. 등교 이후 교실 수업에서 10명 내외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 참여함.			

한국사@반 월/일/시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6/10/4	의병 운동	영상	2명 결석 처리 (방*서/이*호)	
6/11/2	애국 계몽 운동	영상	4명 결석 처리 (김*기/방*서/이*선/이*호)	
6/16/1	경제적 구국 운 동	영상	3명 결석 처리 (방*서/이*선/이*호)	
6/24/4	애국 계몽 운동 평가	의병 활동 정리-토론 자료정 라-개별 해결 -모둠 토의-전체 토의	4명 결석 (곽*엽/김*림/김*기/이*호) 수업후 이*선/방*서/이*빈 미 인정 결과 처리 안내함.	4명 4회 발언 이*호 끝날 시간에 잠시 왔다 사라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음.
6/25/2	애국 계몽 운동 평가(계몽 운동 과 의병 운동 중 어떤 운동을 우 선할까?)	애국 계몽 운동의 장단점 개별 조사-전체 공유-모둠(애국 계몽 운동 평가)-전체 토의	5명 결석 (김*기/방*서/오*균/이*선/이 *호)	5명 7회 발언 바로 도입!!! 설명 최소화. 매력적 과 제 고민
6/30/1	무단 통치	영상	4명 결석 처리 (김*기/방*서/이*선/이*호)	
7/8/4	문화 통치의 기 만성	과제 안내주제 설명 및 자료 읽기-모둠 활동-전체 공유 교사가 일본 입장 역할, 학생들은 한국인 역할 토론.	6명 결석 (김*기/이*민/이*선/이*민/최 *연/이*호)	5명 적극 발언
7/9/2	1910년대 독립 운동1	영상	3명 결석 처리 (김*기/방*서/이*호)	
7/14/1	1910년대 독립 운동1	영상	3명 결석 처리 (방*서/이*선/이*호)	
7/22~7/28	2,3학년 2차 지필 평가 기간으로 시험 전체 범위 학습지를 아이캔노트로 설명하는 영상으로 수업을 대신함.			

<표3> 세계사□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세계사□반 월/일/차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4/20/4	수업 안내	자기 소개하기-수업 안내-과제 제출 안내	전원 출석 이*서/이*현 중간에 사라짐	윤*훈 시끄러움 개별화반 학생 2명 별도 수업
4/23/5-6	세계사 학습 이유	안내교과서로 과제 안내-모둠 활동-발표	결석 4명(장*서/장*영/박*원/이*서) 지각 1명(임*희)	소극적. 반응이 적음.
4/27/4	오리엔탈리즘	글쓰기 우수 사례 공유-교과서 설명읽기 자료 읽기-오리엔탈리즘 설명-과제 안내-모둠 활동-전체 공유	3명 결석(박*원/이*서/윤*훈)	과제1까지만 발표 완료 차시 과제2 발표 해야 좀 입장 제한 시간을 수업 시작 후 5분으로 함.
5/4/4	세계사 학습의 방법	과제2 안내-모둠 토론-전체 토론	5명 결석(임*희/박*원/장*서/김*희/박*서) 1명 지각(윤*훈)	전체 학생이 의욕이 없어 보여 힘이 빠짐.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느낌.
5/7/5-6	선사 시대	안내선사 시대 설명-토론 주제 안내-자료 읽기-자료 조사-모둠 토의-전체 토의	2명 결석(장*재/김*희) 1명 지각(김*형)	윤*훈 참여 여학생만 토론에 적극 참여함. 8명 13회 발언함. 보다 친절하게 부탁하는 자세로 다가 가야. 적극적 칭찬. 낙관. 믿음. 노력. 애정을 보여주는 게 필요 강요. 비난. 포기는 금물.
5/8/7	4대 문명(메소-이집트)	평가 안내-학습 내용 정리 시범-역할 안내-개별 조사-짝 활동-전체 확인	2명 결석(장*재/김*희)	3명 시범 발표함. 박*원 적극 참여함. 모둠에서 짝 활동 바꾼 게 적절함. 최*서 폰이 끊겨 여러 번 재접속
5/11/4	4대 문명(메소-이집트)	전 차시 발표 추가역할 바꾸기-개별 조사-짝활동-전체 확인	4명 결석(장*재/박*서/김*희/이*서)	8명 발표 마침.
5/14/5-6	4대 문명(중국인더스)	전시 추가 발표-역할 분담-개별 준비-짝 활동-전체 확인-역할 바꾸기-짝 활동-전체 확인	4명 결석(장*재/이*서/김*희/김*형)	10명 전체 확인 박*서/김*을 짝 활동 안 함. 서로 낮설고 어색해서 못했다고
5/15/6	4대 문명(중국인더스)	안내역할 확인-개별 조사-짝 활동-전체 확인	5명 결석(김*형/박*서/장*재/김*희/이*서)	7명 발표로 확인
5/18/4	4대 문명 토론	안내자료 읽기-토론 자료 개별 준비	4명 결석(박*서/윤*훈/장*재/김*희)	4명 발표 추가 확인 김*형/이*서 결석 이유 확인. 각각 알람과 와이파이 때문이라 말함.
5/21/5-6	4대 문명 토론	개별 과제 및 입장 확인-발선 토론-전체 토론-짝 토론 안내 및 시범-짝 토론-전체 시범	5명 결석(박*원/장*영/장*재/김*희/이*서)	13명 개별적으로 토론 준비 확인
5/25/4	4대 문명 토론	안내짝 토론-전체 확인-논술 개요서 안내	6명 결석(박*서/장*서/장*영/장*재/김*희/이*서) 지각 3명(박*원/윤*훈/김*형)	지각생. 전시 결석생 수업 후 개별 상담 짝 토론 시범(정*담/최*서) 임*희/송*민 짝토론 안함.
5/27	등교 개학	자필 평가 대비 모의 논술 평가		

세계사□반 월/일/차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6/4/5-6	지구제국 프로젝 트 준비	안내모듬 사회사 인사프로젝트 안내자료1 읽가모듬 내 공유-전체 공유-과제2 공유-개 별 해결-짝 활동-전체 공유-제국표 안내모듬 활동	7명 결석(박*원/김*형/정*서/정 *재/정*영/김*을/김*희)	
6/8/4	지구제국 프로젝 트	안내-모듬 활동-제국표 발표 및 확인-전체 설명	10명 결석(박*원/김*형/박*서 /정*서/정*담/이*현/정*재/김 *희/김*을/이*서)	등교 개학 후 다시 시작한 원격 수업 주간 에 결석생 수 증가
6/18/5-6	잔-수-알렉산드로 스 제국	안내-개별 준비-짝 활동-전체 확인-교사 설명 -자료 읽기(진시항제 평가)-모듬 활동-전체 확인-모듬 활동-전체 토의	7명 결석(김*형/박*원/박*서/정 *재/정*영/김*희/이*서)	진시항제 평가 모듬 활동이 안 됨. 학생들 발언 안 함. 그들은 왜 입을 닫았을까? 닫게 했나? 닫았나?
6/22/4	진시항제 평가 글 쓰기	안내-개요서 준비 모듬 준비-글쓰기 방법 설 명-논술 과제 제출 안내	6명 결석(박*원/김*형/박*서/정 *재/김*희/이*서)	학생들이 진시항제 평가 논술을 어려워 하 는 상태를 확인하고 교사가 논술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줌.
7/2/5-6	당-로마 제국	안내-개별 준비-짝 활동-전체 확인-교사 설명	7명 결석(박*원/김*형/박*서/정 *서/정*재/김*희/이*서)	각 제국에 대한 이해 활동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반복함. (개별 조사-교사 설명-짝 활동-전체 확인- 교사 설명)
7/6/4	비잔티움 제국	안내-개별 준비-짝 활동-전체 확인-교사 설명	8명 결석(임*희/박*원/윤*훈/박 *서/정*서/정*재/김*희/이*서) 1명 지각(김*형)	
7/16/5-6	자필 평가 대비 논술 모의 평가	한 차례 모의 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했음에도 100퍼센트 논술평가에 대 한 걱정이 많아 시험 전체 범위에 걸쳐 논술 모의 평가를 실시함.	4명 결석(정*서/김*희/이*서/윤 *훈)	정*재는 개인 상담 후 참여했으나 도중에 사라짐
7/20/4	수행평가 최종 점 수 확인 후 자습	수행 평가 점수를 비공개 채팅으로 개별적으 로 확인 후 개별적으로 자습함	7명 결석(박*원/박*서/정*재/윤 *훈/김*을/김*희/이*서)	
7/22-7/28	자필 평가 실시			
7/30/5-6	자필 평가 성적 확인 및 독서1	자필 평가 성적을 비공개 채팅으로 확인하며 질의 응답함. 이후 6차시에 걸친 독서 등을 안내한 후 개별적으로 활동함.	8명 결석(박*원/김*형/박*서/정 *서/정*재/윤*훈/김*희/이*서)	
8/3/4	독서2-3	독서록 제출하는 과제형으로 대신함.		

<표4> 세계사△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세계사△반 월/일/차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4/20/2-3	수업 안내	자기 소개하기-수업 안내-과제 안내 (세계사 학습 이유)-모둠 토의-전체 발표	3명 결석(서*하/이*재/최*진) 1명 지각(김*혜)	발표의 적극성이 ○반에 비해 다소 떨어짐.
4/22/6	세계사 학습 이유	안내글쓰기 방법 설명-모둠 활동-전체 공유- 논술 과제 설명	1명 결석(서*하)	5명 발언 이*재 끝까지 머무름. 발표자는 소수이고 말이 적지만 질함. 모둠 활동 대체로 어색해 함.
4/27/2-3	오리엔탈리즘 선사시대	글쓰기 우수사례 공유-교과서 설명-읽기자료 읽기-오리엔탈리즘 설명-과제 안내-모둠 활동 -전체 공유-읽기 자료(만물의 영장)-모둠 토 의-전체 토론	1명 결석(서*하)	무난하게, 차분하게 진행됨. 12명이 16회 발언, 8명 정도가 만물 의 영장 토론 잘 함. 모둠에서 초기에는 조용하나 사례 공 유에는 함. 이침이라 많이 줄리는 목 소리들.
4/29/6	선사시대-만물의 영장 토론(인간은 만물의 영장인가?)	안내-모둠 토론-전체 토의	3명 결석(서*하/이*재/최*연)	5명 7회 발언. 송*현/황*영/최*연 토론 주도 나머지는 소극적. 준비한 내용이 좋음 에도 발언에는 소극적. 보다 적극적 발표 촉진 필요
5/4/2-3	4대 문명이집트- 메소	안내-역할 분담-개별 자료 조사-활동 시범-짝 활동-전체 확인-역할 변경-개별 조사-짝 활동 -전체 확인	2명 결석(서*하/이*재) 2명 지각(서*슬/최*연)	열심히 함. 11명 개별 확인.
5/6/6	4대 문명(메소-이 집트)	안내-추가 개별 확인-모둠 활동(학습지 해결)- 공유	2명 결석(서*하/이*재)	발표, 토론, 과제1-5 발표 적극적. 7명 8회 발언. 정답이 있는 학습지 과제 발표 적극.
5/11/2-3	4대 문명(메소- 이집트/인도-중국)	전차시 발표 추가-역할 바꾸기-개별 조사-짝 활동-전체 확인	2명 결석(서*하/최*연) 5명 지각(최*진/원*린/김*기/조 *우/김*영)	15명 개별 확인
5/13/6	4대 문명(중국-인 도)	안내-추가 개별 확인 3명-학습지 및 교과서 과제 개별 해결-전체 공유	1명 결석(서*하)	주석 기능 사용시 계속되는 장난으로 수업이 중단됨. 서*슬 또는 이*재일 것으로 추정됨. 이후 주석 기능 없음. 6명 발언.
5/18/2-3	4대 문명 토론	안내-개별 준비-모둠 준비-모둠 찬반 토의-토 론 시범	4명 결석(서*하/이*재/오*서/최 *혁) 2명 지각(최*연/김*기)	3명 토론 시범(최*연/류*현/김*혜)
5/20/6	4대 문명 토론	안내-발전에 대한 모둠 토론-공유	4명 결석(서*하/이*재/김*기/최 *혁) 3명 지각(김*윤/최*연/오*서)	9명이 10회 발언
5/25/2-3	4대 문명 토론	토론 안내-짝 토론-전체 토론-개요서 작성(개 별)-발표	5명 결석(서*하/최*연/오*서/최 *연/최*혁) 3명 지각(이*재/김*영/김*혜)	7명이 10회 이상 발언 시범 짝 토론 2팀(임*성/원*린/황*영 /김*별)
5/27	등교 개학	자필 평가 대비 모의 논술평가		

세계사△반 월/일/차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6/3/6	지구 제국 프로젝트 준비	안내프로젝트 안내-제국표 설명-모둠 진행자 인사-모듬 활동-전체 확인	4명 결석(서*하/이*재/오*서/최*혁)	수업 후 모듬 진행자 회의 결과, 학생들이 잘 따라준다면 긍정적 반응.
6/8/2-3	지구 제국 프로젝트	안내-제국표 발표 및 확인-전체 설명-역할 나누기-전체 확인	5명 결석(서*하/이*재/장*/오*서/최*혁)	
6/17/6	진시향제 평가	안내-공통점과 차이점 발표-개별 토론 준비- 모듬 토의-전체 공유	2명 결석(서*하/최*혁)	평가 토론 잘함. 8명 12회 발언
6/22/2-3	진시향제 평가 글 쓰기	안내-모듬별 개요서 준비-글쓰기 방법 설명- 자체 개요서 쓰기-교과서 내용 설명	5명 결석(서*하/이*재/오*서/최*혁/조*우) 1명 지각(최*연)	진시향제 평가 논술을 어려워 함.
7/1/6	당-로마 제국	안내-개별 준비-작 활동-전체 확인-교사 설명	3명 결석(서*하/최*혁/1명인정 결)	
7/6/2-3	비잔티움 제국	안내-개별 준비-작 활동-전체 확인-교사 설명	4명 결석(서*하/이*재/조*우/최*혁) 2명 지각(최*연/오*서)	
7/15/6	자필 평가 대비 논술 모의 평가	한 차례 모의 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했음에도 100퍼센트 논술평가에 대 한 걱정이 많아 시험 전체 범위에 걸쳐 논술 모의 평가를 실시함.	3명 결석(김*영/서*하/최*혁)	출석률이 높아짐
7/20/2-3	논술 모의 평가 및 수행 평가 점 수 확인	논술 모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수행 평 가 점수를 비공개 채팅으로 개별적으로 확인 후 개별적으로 자습함	6명 결석(김*영/서*하/이*재/최*연/최*혁/오*서) 1명 지각(소*우)	
7/22-7/28	자필 평가 실시			
7/29/6	자필 평가 성적 확인 및 독서	자필 평가 성적을 비공개 채팅으로 확인하며 질의 응답함. 이후 6차시에 걸친 독서 활동을 안내한 후 개별적으로 활동함.	5명 결석(김*영/류*현/조*우/서*하/최*혁)	
7/31/7, 8/3/2-3	독서2-4	독서록 제출하는 과제형으로 대신함.		

<표5> 세계사○반 온라인 수업 차시별 정리표

세계사○반 월/일/차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4/17/1-2	수업 안내 및 세계사 학습의이유	자기 소개하기-수업 안내-과제 제출 안내-교과서 내용 설명 및 과제 안내-모둠 토의-과제 제출	결석 2명 조*진(1명조부상) 지각 1명 심*보	7명 9회 발표
4/21/4	세계사 학습 이유	기본 나누기-평가 안내-과제 우수 사례 공유-글쓰기 활동-전체 공유	결석 3명 조*진 심*보(1명 조부상)	4명의 사례 발표
4/24/1-2	오리엔탈리즘	글쓰기 우수 사례 공유-교과서 설명-읽기 자료 읽기-오리엔탈리즘 설명-과제 안내-모둠 활동-전체 공유	3명 결석(김*민/심*보/이*선) 지각 1명(아*민)	6명 8회 발표 모둠 활동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오래 걸림. 지각하는 학생 대상으로 과제 다시 공유하기가 어려움.
4/28/4	선사시대	토론 주제 공유(인간은 만물의 영장인가?)-모둠 활동(찬반 모둠)-전체 토의-과제 안내	1명 결석(김*민)	6명 11회 발표 찬반 의견 확인해서 모둠 구성하기가 어려움. 반응 없는 학생(천*현) 있음. 토론이 매우 격렬. 특히 갈*결, 박*령 다른 의견 흥미진진.
5/8/1-2	4대 문명	안내-역할 분담-개별 자료 조사-활동-전체 확인	1명 결석(갈*결) 2명 지각(김*민/심*보) 과제 설명 후 모둠 입장	적절한 개별학습량에 대한 고민. 8명 학습 내용 및 설명 내용 확인함.
5/15/1-2	4대 문명	평가 안내-학습 내용 정리 시범-역할 안내-개별 조사-작 활동	4명 결석(갈*결/성*윤/이*민/박*은)	5명 학습 내용 및 설명 내용 확인함. 1명 전학
5/6/4	4대 고대 문명 토론 준비	과제 안내-읽기 자료 읽기-토론 자료 개별 준비-준비 내용 확인	1명 결석(안정결) 성*윤 중간에 나감 지각 5명 지각(갈*결/이*민/성*윤/심*보/김*지)	지각한 학생은 개인 상담함. 토론 준비 상태를 알대일로 확인하면서 전체에게 보여줌. 심*보 비디오(침대) 보여주기 시도-경고함.
5/22/1-2	'고대 문명은 역사의 발전인가?' 토론	발전의 기준에 대한 개인 생각 작성-모둠 토론-전체 공유-주제 짝 토론-전체 확인	4명 결석(김*민/성*윤/그외2명) 안정결	이*선 vs 갈*결 시범 토론 논술과 연결하여 설명 5명의 토론 준비 개요서 개별 수정 9명 시범 토론 등 참여
5/26/4	논술 개요서 쓰기	안내-토론 확인-개요서 쓰기-전체 확인	5명 결석(심*보/성*윤/이*원/조*진/1명 공결)	논술 개요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줌. 전시 결석생 수업 후 개별 안내 공결생 수업 후 개인상담
5/27	등교 개학	자필 평가 대비 모의 논술 평가		

세계사○반 월/일/차	수업주제 및 주요내용	수업방법 및 과정	근태사항	특징
6/5/1-2	지구 제국 프로젝트 준비	안내모듬 진행자 인사-프로젝트 안내자료1 읽기-모듬내 공유-전체 공유-과제2 공유-개 별 해결-작 활동-전체 공유-제국표 안내-모듬 활동-전체 확인	3명 결석(조*진/이*민/성*윤) 3명 지각(성*주/김*결/삼*보)	등교 수업에서 합의한대로 모듬 진행 자를 지원받아 운영함. 눈치 보지 않 고 활발하게 참여.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평가함.
6/9/4	지구 제국 프로 젝트	안내-모듬 활동-제국표 발표 및 확인-전체 설명	2명 결석(조*진/성*윤)	
6/19/1-2	수-알렉산드로스 제국	안내개별 준비-작 활동-전체 확인-교사 설명	5명 결석(박*서/조*진/이*민/성* *윤/한*엽) 2명 지각(삼*보/박*령)	
6/23/4	진사항제 평가	안내자료 읽기-모듬 토의-전체 토론	4명 결석(조*진/이*민/성*윤/심* *보) 박*서 출석했으나 무반응	김*현 토론 인상적. 김*결/박*은 적극적 토론.
7/3/1-2	당-로마 제국	안내개별 준비-작 활동-전체 확인-교사 설명	9명 결석(서*환/김*리/조*진/이* *민/박*령/성*윤/임*호/한*엽/ 삼*보)	7월부터 결석생 수가 급격히 증가
7/7/4	비잔티움 제국	안내개별 준비-작 활동-전체 확인-교사 설명	7명 결석(서*환/소*우/이*원/조* *진/성*윤/한*엽/삼*보) 2명 지각(김*진/박*령)	
7/17/1-2	자필 평가 대비 논술 모의 평가	한 차례 모의 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했음에도 100퍼센트 논술평가에 대 한 걱정이 많아 시험 전체 범위에 걸쳐 논술 모의 평가를 실시함.	8명 결석(성*주/소*우/박*서/조* *진/이*민/박*령/성*윤/삼*보)	
7/21/4	수행 평가 최종 점수 확인 후 자 습	수행 평가 점수를 비공개 채팅으로 개별적으 로 확인 후 각자 자습함	7명 결석(소*우/박*서/조*진/이* *민/박*령/임*호/삼*보)	
7/22-7/28	자필 평가 실시			
7/31/1-2	자필 평가 성적 확인 및 독서1	자필 평가 성적을 비공개 채팅으로 확인하며 질의 응답함. 이후 6차시에 걸친 독서 활동을 안내한 후 개별적으로 활동함.	11명 결석(김*민/김*리/소*우/ 이*원/조*진/이*민/차*민/성* 윤/임*호/삼*보/김*지)	
8/4/4	독서2-3	독서록 제출하는 과제형으로 대신함.		

Handwritten notes on a piece of paper, possibly a list or a set of instructions, with some underlined words and arrows pointing to specific parts.

반-번호	이름	이유
1		
2		
3		
4		
5		
6		
7		
8		
9		
10		

Handwritten notes on the table, including '내부' and '외부' labels, and various numerical values and descriptions.

미국 계통 순통 평가		교156-136
반-번호	이름	
1		
2		
3		
4		
5		
6		
7		
8		
9		
10		

Handwritten notes on the table, including '내부' and '외부' labels, and various numerical values and descriptions.

내적	외적
<p>근거1) (근거) 전체 가해범칙 검토 (자료) P.101 참조 (행법) 동행 가해범칙 적용 → 앞선문 → 이를 보완 새로 교육 해법</p>	<p>근거1) (근거) 원 ← 형사 (자료) P.134 (행법) 죄의 성질 → 죄나선 형제적 고려</p>
<p>근거2) (근거) 원 의원 승 (자료) P.94 (행법) 죄의 성질 → 해부 교육 해법</p>	<p>근거2) (근거) 원의미로 성질에 차이가 식인범 별한 (자료) 원의미로, 원의 의의 (행법) 원의미로 근거로 수습한 원의 의의, 전적의 특성은 불 확하다.</p>
<p>근거3) (근거) 내적 원의 불충수 (자료) P.113 (행법) 내적 원의 불충에 의해 원의미로 별한 사항</p>	<p>근거3) (근거) 거점 관련, 원의 불충 (자료) 내적 원의 불충 (행법) 거점 관련 → 거점의 규모 관련 → 거점의 원의미로 관련</p>

반-번호	이름	이유
1		
2		
3		
4		
5		
6		
7		
8		
9		
10		

Handwritten notes on the table, including '내부' and '외부' labels, and various numerical values and descriptions.

미국 계통 순통 평가		교156-136
반-번호	이름	
1		
2		
3		
4		
5		
6		
7		
8		
9		
10		

Handwritten notes on the table, including '내부' and '외부' labels, and various numerical values and descriptions.